

월/요/광/장

하동만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난해 12월 27일 우리는 뜻깊은 사업의 출범을 지켜 볼 수 있었다. 영산강 프로젝트 기공식이 그것이다. 그동안 영산강 배길복원사업, 영산강 르네상스, 영산강 프로젝트 등 여러 이름으로 추진되어왔던 우리 지역 속원사업이 비로소 정부사업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이제 영산강 프로젝트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2008.12.15)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New Deal)사업 중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및 주변경비사업(2009.1.6)의 일환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5년 전부터 구상되어온 영산강 프로젝트는 한때 대운하 논란에 말려들어 환경을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 과정들을 돌아보면 앞으로 영산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영산강프로젝트는 간척사업과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황폐화된 영산강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사업추진의 대전제가 되어야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운하 건설과 영산강 프로젝트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 사업내용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영산강 살리기와 관련 현재 정부는 2009~2011년 1조6천억원(4대강 전체 13조9천억원)을 투입하여 하도 정비, 제방보강, 홍수조절, 천변 저류지 건설, 자연 거길 및 문화관광레저공간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도가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체 사업예산 8조6천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금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산강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 작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영산강이 호반의 젖줄로서 호반의 미래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영산강은 자연경관 이외에 뚜렷한 자원이 없는 광주·전남 지역에 관광 및 레저와

첨단농업·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물부족시대 엄청난 수자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호반의 보고이다. 또한 영산강 개발은 전남과 광주의 상생·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서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 서남권 및 무안 양대 기업도시와 빛가람 공동핵심도시 건설의 배후 지원기지로써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산강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은 보다 폭넓은 안목에서 치밀하게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영산강 프로젝트의 핵심은 영산강 수질 개선에 있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과 통선

영산강 프로젝트의 완성은 황포돛배를 타고 강을 오르내리며 관광객들이 풍부한 해산물, 남도 한우 등 남도음식을 즐기는 등 관광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서·남해안과 도서에서는 최첨단 해양레저 및 각종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고 영산강 유역은 고대문화 유적과 남도의 전통 모두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들 사업은 영산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민간투자 유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영산강 개발에 대한 논쟁은 어떻게 하면 영산강에 잠재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여러 사례에서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다 실리를 놓치고 만 예를 많이 보아왔다. 영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은 지역민 모두의 능동적 참여에 달려 있다. 작게는 영산강 물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등 지역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야 하고 지역 전문가들은 영산강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대해 창조적 비판을 가함으로써 영산강이 명실상부한 호반의 젖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산강 프로젝트의 출범

문 확장, 영암호·금호호 연륙수로 확장을 위한 투자 시급하고 이와 함께 영산강 하구둑 이설문제, 부분 해수 유입을 통한 수질개선사업도 본격 추진되어야 한다. 영산강 주변에는 마한유적(BC 3~4세기)과 고인돌(전세계 고인돌 8만기 중 한반도 5만기, 전남에 2만4천기) 등 고대문화 유적이 산재되어 있다. 경주가 1~2천년 전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면, 영산강 유역은 기원전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을 한반도의 고대문화종합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 설

헛 공약된 호남고속철 2012년 완공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 2012년 완공'이 결국 헛공약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호남고속철도 완공을 자신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그의 당선에 따라 호남 지역민들은 오랫동안 호남 소외의 상징이었던 호남선 철도가 '저속철'의 굴레를 벗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다며 큰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출범 1년이 다 돼가도록 '조기 완공 노력'이라는 수사(修辭)만 잔뜩 늘어놓다가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핑계로 난공불락의 공사로 호남 고속철을 '완공 불가'라는 말을 흘리며 슬슬 눈치를 보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SOC사업을 책임지는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어려움이 많지만 1년 이상 앞당기겠다"거나 "정부 계획인 2017년보다는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2012년 완공'이란 대선 공약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결국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호남고속철도 완공 시점은 정부 계획인 2017년보다 기껏해야 1년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호반의 숙원이다. 또 호남고속철은 호남고속철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교통축을 형성해 한반도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토의 대동맥이다. 호남고속철은 완공돼 땀 흘려 내달리는데 호남고속철은 지지부진한 공사만 계속한다면 36년 걸린 호남선 복선화의 역동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을 앞세우기보다 본인이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느냐'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 댄 '왕창' 내릴 땐 '절끔' 물가 왜 이러나

국내 물가가 오를 때는 다른 나라보다 짝새게 '왕창'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그것도 '절끔' 내리는 게로써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 상승률이 최근 국제 곡물가와 유가의 급락으로 지난해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폭락 떨어지고 있지만 유독 한국 물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격이 내리지 않은 품목들은 식료품과 유류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이래저래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물가상승률은 2.3%로 고점인 7월의 4.9%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G7 국가도 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4.6%에서 1.5%로 3분의 1 수준이 됐다.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하락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5.9%에서 4.5%로 1.4%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전체 상승률의 5분의 1 정도만 반납하고 멈췄다.

이 같은 이상한 물가구조에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지난해 밀가루 가격이 59.9%나 폭등하면서 외식 물가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7%가 올랐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자장면, 짬뽕, 라면, 피자 등의 가격이 10% 이상 급등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휘발유 값은 12.4%, 경유는 31.8%, LPG도 32.3%나 올랐다.

문제는 곡물가격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우리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환율 요인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환율 탓만 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사라졌음에도 최중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는 기풍을 보이지 않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이상한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위싱턴은 3만명의 지원병으로 승리 거렸다. 이들은 리치몬드(남부의 수도)를 향하자며 외쳤다. 북부군은 남부를 향해 포도백강을 건넜다. 군대는 흡사 소용돌이 거둬 출격했다.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상하 양원의 원들이 뒤를 따랐고, 쌍안경을 가지고 온 귀부인도 있었다. 농부들은 부인과 음식을 실은 광주리를 마차에 싣고 전쟁 구경에 나섰다.'

앞드레 모로아의 명저 '미국사'에 묘사된 남북전쟁 개전 첫 전투 장면이다. 이 전투에서 북군은 패했다. 전쟁은 남만이 아니었다. 남북전쟁은 신생 국가 미국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미국은 2차대전 희생자보다 많은 자국민을 남북전쟁에서 잃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텔아비브 미술관, 이스라엘의 국기인 '다윗의 별'이 필릭스는 가운데 벤 구리는 초대 총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스라엘 건국을 공식 선언한 순간이다. 참석자 전원은 감격에 겨워 국가 '하티크바'(희망이란 뜻의 히브리어)를 합창했다. 그

러나 감격을 즐길 시간은 없었다. 참석자들은 그 곁로 전쟁터로 향했다. 이스라엘 건국으로 촉발된 제1차 중동전쟁이 터진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유대인에게는 축복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다. 특히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시오니즘이 강화되면서 중동은 이후 전쟁과 학살의 지옥으로 변했다.

다. 마하스 전멸을 목적으로 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격화되고 있다. 민간인 학살로 접화된 더러운 전쟁의 현장에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가자지구와 인접한 국경에 몰려든 이스라엘인들은 라디오, 망원경, 간이 의자, 도시락 등을 준비한 채 '전쟁이라는 공연'을 관람하고, 폭탄이 터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른다고 한다. 전쟁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재앙의 결과는 자신들을 공식 선언한 순간이다. 참석자 전원은 감격에 겨워 국가 '하티크바'(희망이란 뜻의 히브리어)를 합창했다. 그

이스라엘인들은 라디오, 망원경, 간이 의자, 도시락 등을 준비한 채 '전쟁이라는 공연'을 관람하고, 폭탄이 터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른다고 한다. 전쟁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재앙의 결과는 자신들을 공식 선언한 순간이다. 참석자 전원은 감격에 겨워 국가 '하티크바'(희망이란 뜻의 히브리어)를 합창했다. 그



이스라엘인들은 라디오, 망원경, 간이 의자, 도시락 등을 준비한 채 '전쟁이라는 공연'을 관람하고, 폭탄이 터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른다고 한다. 전쟁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재앙의 결과는 자신들을 공식 선언한 순간이다. 참석자 전원은 감격에 겨워 국가 '하티크바'(희망이란 뜻의 히브리어)를 합창했다. 그

법조 칼럼

최재훈



몇 년 전 지방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구속 피의자였던 '오픈티오'라는 베트남 노동자의 국선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다. 그의 혐의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그가 공사현장 숙소에서 한국인 인부들 때려 2주 상해를 입힌 것이다. 기록상으로는 '오픈티오'에게 별다른 선처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한국인 인부를 폭행했고, 처음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으로 조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사건 당일 작업에 마친 베트남 인부들이 숙소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려고 하자 평소 외국인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피해자가 별다른

고 베트남으로 추방될 상황에 처하자 그는 구치소에서 식음을 전폐하였다. 그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와 빚을 해결할 방법이 막막했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결국 재판과정에서 밝혀졌고, 필자의 설득으로 잘못을 인정하게 된 그에게 감사는 구형을 변경하였고,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베트남인 '오픈티오'가 다시금 '코리안 드림'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 '러브 인 아시아', '미녀들의 수다' 등 인기리에 방영중인 TV 프로그램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남아시아, 중국,

'오픈티오'들을 위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코드를 뽑아 세탁을 방해하였고, 이를 지켜 본 '오픈티오'가 그동안 동료가 당한 수모를 참다 못해 피해자를 때리자 이를 분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 사안이었다. 피해자의 상처는 중하지 않았지만 한국법이 서툰 '오픈티오'는 자신을 제대로 변호할 수 없었고, 처벌로 인한 강제 출국의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 구속이 되었던 것이다. 베트남 농가에서 노부모와 처, 3명의 자식을 부양하였던 그는 찢어지는 가슴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을 배불리 먹여 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으로 '코리안 드림'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많은 빚을 지고 감마저 저당 잡힌 채 한국에 입국한 후 공사현장에서 한 달에 100만원을 벌여 90만원을 송금하고, 10만원으로 한 달을 버텼다. 그런데 입국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자로 처벌받

러시아 등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고,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 9. 2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광주지방검찰청은 전라남도, 광주시와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고, 그 시책 마련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순간적인 울분을 참지 못한 '오픈티오'의 폭력행사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를 탓하기에 앞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수많은 '오픈티오'들에게 한국이 진정한 꿈과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 고

오사옥



최근 지구 온난화를 상징하는 징후들이 지구상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양극에서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국내적으로는 매년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 재산상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과 등 과일의 북방 한계선이 북상하고 아열대성 과일이 남해안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상의 탄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매년 지구 표면상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산림을 잘 가꾸어 나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동일한 기능이 있는 상품이라면 에너지 효율이 좋고 폐기물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의 실천을 생활화해야 한다. 가정 및 직장에서는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수도물을 절약하며 승용차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가스는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데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 나무는 온실가스를

또 다른 탄소시장을 대비하자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했으며,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의 틀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소비와 생산을 줄이고 풍요로움을 자제하고 탐욕을 버려야 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어떻게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또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년 이상의 CDM 사업을 유엔에 등록시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줄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주변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 보건대 인류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시켜 왔으며 그 결과 지구의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제부터는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국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국민은 스스로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탄소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를 줄이면 돈이 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탄소 경량기업의 앞날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고 다가오는 또 다른 탄소 시장에서 보다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보편타당한 일상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할 때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장>

6·25 전쟁... 6·25 사변... 올바른 명칭 정해야

직장에 다니는 아이가 2009년도 달력을 가져왔다. 내년도 가족의 생일과 이것저것 챙길 일을 달력에 적다가 문득 6월에 이르러 6·25라는 날짜에 눈길이 갔다. 거기에는 '6·25전쟁'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하지만 6·25는 '사변'인가 '전쟁'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현재 6·25는 전쟁, 사변, 동란 혹은 한국전쟁, 자유수호전쟁, 인민해방전쟁(북한)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1973년 3월 30일에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는 '6·25사변일'로 명칭을 정해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를 한다'고 돼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6·25는 '6·25사변'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달력과 책, 기타 안내문과 출판물 등에는 '6·25사변'이 아닌 '전쟁'이나 '동란' 등 여러 가지로 뒤섞여 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표현의 정의를 무엇이 됐든 간에 국민의 정서와 역사적 진정성이 적용된 적절한 명칭이 국가 모든 분야에 올바르게 통일된 이름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지호·목포시 축북동>

어린이들의 비만은 어른들 잘못

최근에 아이 생일을 맞아 모 외식 전문점에 갔다. 그곳은 기본 메뉴를 시킨 후 뷔페식당처럼 각종 샐러드류를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샐러드 메뉴 중에는 감자 튀김이 있었는데 네 앞에서 그것을 접시에 담은 모자(母子)를 보면서 어린이들의 비만은 '정말 어른들 잘못이 크다'라는 것을 느꼈다. 감자튀김을 집어드는 엄마가 상당히 동똥똥했는데 그거야 엄마 사정이라고 해도, 같이 감자 튀김을 담은 아들도 비만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아들에게 "이게 참 달콤하

지? 우리 많이 먹고 가져"라며 오히려 아이의 접시에 감자 튀김을 가득 담아주고 있었다.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백번 이해를 한다. 하지만 어릴 적 식습관이 잘못돼 소아 비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성인기 돼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녀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여 주는 사람보다, 그것을 적절히 줄이면서 성인이 돼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훨씬 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해주는 것이라는걸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은실(광주시 동구 신수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